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대표전화 031 - 249 - 7114,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031- 249 - 8061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 호스피스는 가톨릭 정신과 빈센트 성인의 영성을 바탕으로 고통 받는 말기 질환 환자들의 남아 있는 생존기간을 의미 있고 안락하도록 돌보며 환자와 그 가족의 안위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호스피스 팀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근본 정신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

성빈센트 병원의 호스피스는 1994년 원목탑 중심으로 암 환자의 방문을 시작으로 1995년 팀 모임을 시작하여 호스피스의 개념, 철학, 취지 등을 구체화 하였다.

1997년 4월 12일 호스피스과를 개설하여 환자들을 방문하며 말기 암 환자의 존엄성과 특별한 배려를 위한 호스피스 전문 병동을 구상하였다.

2001년 3월, 809병동 내 20병상의 호스피스 병동을 개설하여 원목자, 자원봉사자, 사회사업가와 함께 환자들을 방문하며 호스피스의 발전에 노력하였다.

2007년 보건복지부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지원 기관으로 선정되어 좀 더 말기 암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간호를 실행하게 되었으며, 2008년에는 보건

복지부로부터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지원 상위기관'으로 선정되었고, 3월에는 호스피스 독립병동으로 리모델링하여 13병상을 운영, 깨끗한 시설,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야외정원을 갖춰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정과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 1월 경기도 제1호 말기 암환자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경기도 지역주민들에게 말기 암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2011년 5월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개원 1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말기 암 증상조절과 호스피스 돌봄" 책자를 발간하여 조금 더 환자의 증상 돌봄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많은 학술대회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논문과 포스터 등으로 수상하였다.

2011년 9월부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제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시범기관으로 건강보험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표준수가의 모형을 개발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의 호스피스전문 간호사과정, 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 표준화 교육과정 교육생, 국립암센터 고위교육과정, 지역암센터 표준화교육생의 60시간 완화의료 실습지로 제공되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에서 인정하는 '호스피스 간호' 보수교육을 개발하여 매년 실행하고 있다.

본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의 구체적인 활동을 보면 호스피스 환자 24시간 간호 및 통증조절과 함께 환자 입원 시 호스피스 초기 면담, 호스피스 팀 주 1회 팀 미팅, 호스피스환자와 가족을 위한 증상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병동 전담으로 상주하며 환자와 가족의 면담과 병원 직원교육, 타 기관의 호스피스 교육에 힘쓰고 있다.

주 1회 시행하는 팀 미팅은 의료진과 원목자, 자원봉사자 등의 팀원의 모임으로 환자와 가족에 대한 치료계획을 세우고, 호스피스 병동행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연구논문 review를 통해 근거기반 중심의 간호를 제공하며, 현재 400회 이상 진행하였



며, 2011년부터는 팀원들의 워크숍을 시행하여 팀원들의 단합과 소진예방에도 함께 힘쓰고 있다.



본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에서는 ‘가족미팅 (Family Meeting)’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 호스피스 치료팀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환자의 의료적 상태 및 앞으로의 치료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질의응답을 하며, 환자의 소원 및 유언을 듣고 가족 간의 갈등, 재산상의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의 정서적인 안녕을 유지시켜 준다.

매년 실행되고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은 수원 교구 내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수료자들 안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매년 4회 이상의 실무 재교육을 통해 봉사자의 의미와 긍지를 갖도록 도모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지게 한다.

본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은 각종 요법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술, 원예, 음악 등 전문 치료 봉사자들로 구성된 각종 요법을 통해 무의미하기 쉬운 환자들의 생활에 활력들 불어넣어주고 있으며, 옥외요법으로 산책과 추억여행을 주선하며, 환자분의 결혼식, 환갑잔치, 소원 이루어 주기, 성탄파티 등을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있다.

사별가족의 관리를 위하여 장례식장 방문, 사별 후 1주일 이내 전화방문, 사별관리 안내 리플렛을 가정으로 발송하며, 매일 마지막 월요일에 사별가족 미사와 모임을 시행한다.

미사 후에 신부님과 원목실 식구들은 음악선물로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또한 매년 추모제를 시행하여 사별가족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은 병원의 주보이신 빈센트 성인의 영성인 자비와 친절과 사랑으로 매년 150여명의 환자들의 삶의 마무리에 함께 하고 있다.

